

## 20세기 전반의 전주 지방 서적 발행 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mercial Book Publishing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n Jeonju(1909-1937)

강혜영(Kang, Hye-Young)\*\*

###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출판 활동의 구조와 특성 |
| 2. 20세기 전반의 출판 문화적 배경 | 5. 출판물의 내용분석     |
| 3. 출판활동과 제도적 특성       | 6. 출판사별 판권면분석    |
|                       | 7. 결 론           |

### < 초 록 >

1909-1937년 동안 전주지방 서계서포, 다가서포, 문명서관, 완홍사서포, 칠서방, 양책방 등의 서포들의 출판활동 기간, 출판활동에 종사하였던 인물, 출판활동 지역, 출판 서적의 내용, 판권면에 기재되는 사항 등을 조사하여 당시 전주 지역 출판활동의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서포에서 발행된 서적의 판권면을 조사한 결과, 활동 기간은 1911년부터 1937년까지이고, 발행자는 탁종길, 박경보, 양진태, 장환순, 양승곤이며, 인쇄자는 양승곤, 양완득, 김관선, 김광수, 양창조, 김정근이며, 양진태와 양원중은 형제이었다. 활동 지역은 부서 4개, 다가정 70번, 다가정 124번, 다가정 123, 본정1정목, 용진면 아중리이다. 발행된 서적은 서계서포(29), 문명서관(11), 완홍사서포(5), 다가서포(49), 칠서방(30), 양책방(16)으로 총 140종이다. 주제별 분포에서 가장 많은 것은 서계서포(집부 소설류), 문명서관(자부 유서류), 완홍사서포(소설류), 다가서포(집부 소설류), 칠서방(경부 사서류), 양책방(경부 소학류)이고, 전체적으로는 집부 소설류이다. 중복 출판된 것은 「千字文」, 『兒戲原覽』, 「통감절요」, 사례편람, 춘향전, 도옹전, 구운몽, 유충열전, 「화룡도」 등이다. 판권면에서 발행일자와 허가일자는 필수적이고, 인쇄일자는 다가서포본에서 부터 나타난다. 가격은 칠서방과 양책방에서 누락되고, 판권표시는 칠서방에 없다. 저작역할어는 저작검발행자로 기재하고, 인쇄는 인쇄검발행자, 인쇄자, 인쇄겸인쇄자 등으로 기재(주소·성명포함)하고, 발행소는 인쇄겸 발행소 혹은 발행소로 기재(주소·명칭 포함)하고 있다(완홍사서포 제외). 발매소는 칠서방과 양책방에서 표기하고, 서적 가격은 90전부터 '금8전'까지이나, 40전이 가장 많다.

要語: 전주, 출판, 일제강점기, 판권면, 서계서포, 다가서포

\* 이 논문은 2006년도 전북대학교 학술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helen@chonbuk.ac.kr)

접수일: 2008년 12월 4일 최초심사일: 2008년 12월 6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17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s and structure of the commercial publishing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Jeonju by analyzing the colophons, the activities of 6 major local publishers, and the contents of their publications.

The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n analysis of the colophons shows that books were mostly published during the period of 1909-1937 by such publishers as Tak Jonggil(탁종길), Park Gyeongbo(박경보), Yang Jintae(양진태), Jang Whansun(장환순), Yang Seunggon(양승곤), and printed by Yang Seunggon(양승곤), Yang Yoandeug(양완득), Kim Kwanseon(김관선), Kim Kwangsu(김광수), Yang Changjo(양창조), and Kim Jeongkeun(김정근). The places of publication were Buseo(府西), Daga70, Daga124, Daga123, Bonjeong-1-jeongmok, and Yongjin-myeon Ajung-li. A total of 140 titles were published, and Daga-seopo(다가서포) ranked the top by publishing 49 titles.

Most of those publications belong to the category of literary works, and such books as Chonjamun(천자문), Ahheewonlam(아회원람), Chonhwagjeon(「춘향전」), etc. were published by more than one publishers. In the colophon, the dates of publication and registration were essentially included, and also recorded were the price(except Chilsebang and Yangchakbang), the copyright notice(except Chilsebang), the addresses and names of publishers and printers, bookstores.

Key words: Jeonju, publishing, Japanese Occupation, colophon, Seogyeo bookstore, Daga bookstore

## 1. 서론

전주지역은 조선시대부터 출판문화를 선도하였던 지역이다. 감영을 중심으로 한 관판본의 출판과 함께 자생적인 시장 형성과 방각본의 출현으로 민간출판사들의 서적 발행 활동이 활발하였다. 그 배경은 농본사회에서 농업이 발달했던 지역적 특성으로 판소리 문화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책들의 독자층이 많았던 관계로 대중들의 서적 수요 또한 많았을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근대 출판이 시작된 1883년 이래 사회 전반에 밀려오는 개화사상의 영향으로 민관의 여러 부처에서 개화사상의 고취를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정부에서도 개화사상의 교육을 위해 새로운 학제를 개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교과서의 출판량도 많아지게 되었다. 출판 부문에서도 신식 인쇄기의 도입으로 대량 출판을 전개되면서 과거 목판본 중심의 방각본은 점차 쇠퇴하게 되는 등의 변화를 가져왔다.

1909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새롭게 출현된 출판법의 규제로 인해 근대적 인쇄 출판의 양상은 외형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저작자와 발행인, 발행소를 정확하게 기재된 판권면이 출현된 것이다. 그러나 출판 활동은 출판법의 규제로 인해 서적을 출판할 때 마다 원고의 사전 검열과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로 번거로움이 많아 발행이 쉽지 않았다. 더구나 지방에서 목판본 중심의 출판 활동은 서울 중심의 출판문화와 신식 출판물에 밀려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점차 목판본 중심의 방각본은 쇠퇴되기 시작하였으나 전주의 서계서포, 다가서포, 문명서관, 양책방, 완흥사서포, 칠서방, 창남서관 등은 일제 강점기 후반까지 출판 활동을 계속하였던 서포들이다.

완판 방각본과 전주감영본 등을 중심으로 전주지방의 출판 문화에 대한 연구는 다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활동하였던 민간서포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아 방각본 발생지로서 쇠퇴기까지 그들이 활동하였던 경로와 출판에 주력하였던 서적들에 대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방각본 쇠퇴기였던 일제 강점기의 서포들이 수행하였던

출판활동을 구명하고자한다. 즉, 출판활동 기간, 출판활동에 종사하였던 인물, 출판활동 지역, 출판 서적의 내용, 판권면에 기재되는 사항 등을 조사하여 당시 전주 지역 출판활동의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20세기 전반의 출판 문화적 배경

### 2.1 전주의 행정 문화적 배경

전주가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은 후백제시대 견훤이 전주에 왕도를 정한 후부터<sup>1)</sup>이었다. 그러나 고려 성종 2(983)년에 목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행정 중심이 아닌 단순한 군사주둔지<sup>2)</sup>에 불과하였으나 독자적인 영력으로 단위 행정 구역인 중심도시로 취급된 것은 조선시대에 와서였다.<sup>3)</sup> 조선이 건국되자(1392년) 태조는 전주를 왕조발상지로 특별 취급하여 완산 유수부를 설치하여 완산 부윤을 임명하였고, 태종 3(1403)년에는 완산부가 전주부로 개칭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당시 전주부의 관할 구역은 4현(縣), 2향(鄉), 2소(所), 4경(境)이었다. 4경을 보면 동 고산 30리, 서 금구 27리, 남 임실 31리, 북 여산 46리라 했으니 전주부는 방대한 행정구역을 관할하였다.<sup>4)</sup>

1895년 을미개혁으로 전주부가 폐되면서 전주부의 관할 구역은 전주부성 지역은 동서남북의 4면인 북면(府北面), 동면(府東面), 서면(府西面), 남면(府南面)을 중심으로 하는 전주부성 지역과 초곡면, 회포면, 이동면, 이북면, 조촌면, 우림면, 난전면 등의 외곽의 27개면을 합쳐 31개면으로 형성되었다.<sup>5)</sup> 1910년에는 전주에 전라북도청이 설치되었고, 1914년 전주의 부내 4면을 전주면

1) 김규남, 이길재,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전주: 신아출판사, 2002), 50.  
2)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연구: 전주부성을 중심으로』(서울: 학연문화사, 1994), 33.  
3) 상계서, 189.  
4) 전주부사, 294-295.  
5) 완산지, 방리조.

으로 하고 인접 17개면이 전주군으로 되었다. 1930년 상관면의 일부가 전주면에 편입되어 전주읍으로 승격되면서 화산정과 소화정이 신설되었고, 1931년6월에는 전주 읍으로 되었다가 같은 해 10월에 다시 전주부로 승격하였다.<sup>6)</sup>

행정구역상의 변화와 함께 1912년 10월에 1차 시구개정(市區改正) 법령이 발령되었다.<sup>7)</sup> 이어 1914년 2차 시구개정이 끝난 직후에 전주면으로 전주의 행정구역이 축소되면서 소단위 행정구역 명칭인 계(契)와 리(里)가 일본식 명칭인 정(町)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정정과 본정이 설치되었고, 도로명도 대정통, 본정통 등으로 불렸다.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지역과 장소에 시장을 개설하였다는 기록은 삼국사기<sup>8)</sup>에서 찾을 수 있다. 즉, 490년에 처음으로 경주에 시장을 개설하여 사방의 화물을 통하게 하였음에서 경주에 시장이 설치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농본역상의 정책이 확대되어 상업은 서울의 육의전에 서만 공인되었다. 난전을 금했으며, 특히 지방도시 상업도 적극적으로 억제되었다.<sup>9)</sup> 이러한 사정 속에서 전주에 시장이 발생하게 된 것은 성종 원(1470)년,<sup>10)</sup> 17(1486)년<sup>11)</sup>에 대기근의 발생으로 굶주림이 심하였다.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시장이 만들어진 상황을 “서울 외의 지방에는 상설 점포가 없었는데 성종 원년의 기근에 전라도 백성이 스스로 모여 市脯를 열어 場門이라 불렀다”<sup>12)</sup>라고 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전주에는 동문시장, 남문시장, 서문시장, 북문시장이 있었고, 큰 장은 남문외장과 서문외장이었고, 작은 장은 북문외장과 동문외장이었다.<sup>13)</sup> 남문외장

6) 전주부사, 321, 327.

7) 시구개정사업을 실시한 지방도시에서 6개 면(面)에 전주가 포함되고 있었다. 장명수, 1994, 238.

8) 三國史記 권제3. 신라본기 제3. 조지마립간. 12년조.

9) 김운태, 조선왕조행정사<sub>1</sub>(서울: 박영사, 1987), 19, 30.

10) 전주부사, 992. 成宗元年秋雨南大饑.

11) 상계서, 992. 成宗17年春大旱秋三南大饑.

12) 조선왕조실록. 성종 4년. 임신조.

13) 林園十六志. 倪圭志. 全州府內 大場 每二日設於南門外 每七日設於西門外 小場 每四日設於北門外 每九日設於東門外.

은 남문밖장 혹은 남밖장이라고도 부르고, 서문외장은 서문밖장 혹은 서밖장이라고도 불렀으며,<sup>14)</sup> 완판 구간기에도 기재되어 있다. 서적 출판과 관계있는 지역으로는 전주부성 편 매곡교 다리에서 서천교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책방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책방거리의 위치는 전주천변 중에서도 전주천 물길에 가장 가깝게 있었으나 그 수는 많지 않았고, 당시에는 간판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다가서포’, ‘서계서포’ 등과 같은 책방 이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sup>15)</sup>

### 3. 출판활동과 제도적 특성

한국 출판사의 연구에서 시대적 구분은 보는 이의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근대 출판’은 크게 ‘개화기(1883-1910)’와 ‘일제기(1910-1945)’로 나누는 학자들이 많은 편이다.<sup>16)</sup>

그러나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한 시대적인 배경은 1901년부터 1937년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보다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근대적 출판문화에 대한 시대적 배경은 최준<sup>17)</sup>과 방효순<sup>18)</sup>의 견해를 토대로 5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즉, 1901-1905년은 제1기인 개화사상 도입기에 속하고, 1905년-1919년의 신식 출판 문화 수용기이며, 1920-1928년은 제3기로 문화정치시대로서 출판 문화의 발전기에 속하고, 1929년-1936년은 제4기로 출판 문화의 침체기이며, 제5기는 1937년-1940년로서 일제하에서도 출판 문화가 다시 부흥되었던 시기였고, 제6기는

14) 김규남, 이길재.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 80.

15) 상계서, 35-36.

16) 변영희, “한국의 출판정책,” 출판학연구, 33권(1991), 89-90.; 조대형, “미군정기의 출판 연구,” (중앙대학교 신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5-6.

17) 최준, “한국의 출판연구: 1910년으로부터 1923년 까지,” 「신문연구소학보」(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1집(1964. 5), 11. 제1기를 1894년-1905년, 제2기는 1905년-1915년, 제3기는 1919년-1936년. 8월, 제4기는 1936년. 8월-1945년8월15일로 구분하고 있다.

18)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 발행 활동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1).

1941-1945년으로서 일제의 전쟁 야욕으로 인한 암흑기라 할 수 있다.

근대출판의 시초는 박문국이 설치되었던 1883년 설이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sup>19)</sup>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의 한국 사회는 정치적인 격변기로 국내정세의 격동과 서구의 신문화 수입으로 개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개화기의 선각자들은 '서적을 공기와 같이 필수적인 것'<sup>20)</sup>으로 믿었다. 이들은 국가와 민족에게 필수적인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는 계몽수단으로 서적을 생각하였다. 봉건적 조정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 신식 인쇄술을 도입하여 신문화 보급과 근대적인 교육체제가 확립됨으로써 신식 교육을 위한 교과서의 출판이 출판사의 가장 중요한 품목이 되기도 하였다.<sup>21)</sup>

그러나 일본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집회취재령, 보안법, 치안유지법, 신문지법(1907년 7월 법률 제1호), 출판법(1909년 2월 23일 법률 제 6호)과 같은 여러 가지 통제 정책으로 당시 출판계의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특히 일반 도서의 출판은 출판법<sup>22)</sup>의 제재를 받았다.

개화 사상 및 신식 출판문화의 유입속에서 새롭게 출현된 출판법의 규제로 인해 근대적 인쇄 출판의 양상은 외형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눈에 띄는 특징은 정확한 저작자와 발행인, 발행소를 알 수 있는 판권지가 출현된 것이다. 출판법에 따라, 서적을 출판할 때 마다 원고의 사전 검열과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로 번거로움이 많아 발행이 쉽지 않았다. 이처럼 출판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자, 대응책으로 여러 출판사들의 협력활동이 이루어져 공동 출판과 중복 출판 등 다음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① 판권지의 출현: 1909년 2월 23일에 법률 제 6호로 공포된 출판법은 우리나라 인쇄 출판사에서 큰 분기점이 되고 있다. 자유롭게 인쇄 출판하였던 그 이전의

19) 안춘근, 「한국출판문화사대요」, 언론·출판총서 1. (서울: 청림출판, 1987). 331.

20) 이중한 등, 「우리 출판 100년」, 방일영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총서 권12. (서울: 현암사, 2000). 32.

21) 상계서, 42.

22) 안춘근, 「현대한국출판사략」 (서울: 을유문화사, 1965). 59.

관행과는 달리 여러 가지 수속을 거쳐야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 수속 과정은 출판에 앞서 우선 원고검열을 받고, 총독부경무국에서 허가된 원고대로 인쇄해서 다시 대조검사를 받고서야 판매가 가능<sup>23)</sup>하였던 것이다. 때로는 일단 허가된 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금서처분을 가하는 서적 탄압의 방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대화 이전의 서적 출판에는 없었던 발행사항과 발행인과 편집인, 주소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된 판권지가 출현되어 보다 확실한 출판관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② 방각본의 쇠퇴: 조선조 후기에 민간업자에 의해 상품으로서 판매하기 위해 출판되었던 방각본은 정권에서 유리된 양반계층이 증가하고 서민 문화가 팽창함에 따라 책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여성 독자층을 겨냥한 한글 소설인 이야기 책의 출전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sup>24)</sup>

그러나 19세기 말엽에 이르러 신식 인쇄가 도입되고, 활자본 신소설이 유행하게 되자 방각본의 출판은 사양길로 접어들었지만 1910년까지는 서민 대중들의 읽을거리로 사랑을 받고 있었다.<sup>25)</sup>

③ 출판사간 협력: 출판법의 규제 속에서 출판 활동이 쉽지 않은 출판사가 난립되면서 발생하는 지나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는 동일한 책을 특정 출판인이나 여러 출판인들이 합자해서 출판하고, 각기 다른 지역에서 분배해서 판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 출판의 방안이 나오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다량출판으로 책값을 저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출판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당시는 책을 출판할 때마다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출판이 쉬운 편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책을 출판하여야 하는 여러 출판인들은 공동

23) 안춘근, 「한국출판문화론」 (서울: 범우사, 1981), 203.

24) 이중한 등, 「우리 출판 100년」, 방일영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총서 권12. (서울: 현암사, 2000), 30.

25) 상계서, 30.

으로 출판해서 판매를 분배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사서삼경과 그 언해서, 소학서, 각종 구소설류가 대표적인 공동 출판물이었다.<sup>26)</sup>

또 하나의 방안은 친인척 관계에 있던 출판사들이 서로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서포의 인수 합병이나 판권의 매매 및 대여에 협조적으로 활동하였다. 예를 들면 다가서포의 발행자인 양진태와 서계서포의 인쇄자인 양원중은 형제간이었고, 서계서포는 후일에 다가서포에 흡수되었다

마지막 방안은 대중들의 수요가 많은 서적을 집중적으로 출판하는 것이다. 중복 출판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출판사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요가 많은 서적에 대해서는 출판사들이 별도로 발행활동을 벌였기<sup>27)</sup> 때문이며, 이로 인해 동일서에 대한 異本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 4. 출판 활동의 구조와 특성

일제 침략이 본격화 되면서 출판업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은 출판법의 시행이었다. 1909년 2월 23일에 법률 제 6호로 공포된 출판법(부록 1)에는 필수적으로 판권지가 붙게 됨으로써 서적의 발행 사항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판권지 조사를 통해서 서적을 출판하였던 민간서포는 서계서포, 다가서포, 문명서관, 양책방, 완흥사서포, 칠서방, 창남서관 등이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서포들이다.

이들 서포들이 발행자로서 기재하는 판권면의 형식은 법률의 규제를 따르는 것이므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각 출판사마다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출판법의 시행 이후 마지막 방각본 출판사였던 양책방이 와해된 시기까지 전주지방에서 출판된 서적들의 판권면을 통해서 기재요소와 형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6) 방효순, 전계서, 74.

27) 상계서, 78.

(1) 서계서포

서계서포는 출판법의 시행 이후, 1911년부터 1922년까지 전주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출판활동을 하였던 곳이다. 서포의 경영주는 탁종길(卓鍾吉, 1883-1947)로서 발행 서적의 판권면에는 ‘저작 겸 발행자’ 기재되어 있으며, 인쇄겸 발행자는 양원중으로 등록되어 있다.

서계서포의 명칭은 출판법의 시행 이전에 있었던 「兒戲原覽(1932)」의 ‘丁未(1907)西溪新刊’과 「초한전」 권말의 ‘隆熙二年(1908)戊申秋 七月西漢記完에西溪新刊’라는 구간기에서 ‘西溪’가 사용되고 있었던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서포가 위치했던 1911년 당시 주소는 간행된 서적의 판권면에서 찾을 수 있다. 「簡禮彙纂 과 「兒戲原覽」에서 서계서포의 주소는 ‘全州郡 府西 四契’만 기재되어 있고 저작 겸발행자인 탁종길의 주소는 全州郡 府西面 四契 十三統 6戶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발행일자가 明治44년 八月二十二日로 동일하게 기재된 「唐音精選」에서는 저작겸발행자 인 탁종길의 주소가 ‘전주군전주면다가정70번’으로 기재되고 있고, 인쇄겸발행소의 주소도 전주군전주면다가정70번으로 되어 있다. 대정 2(1913)년 12월 6일 전라북도 고시 73호로 변경된 주소인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70番’로 기재되어 있다. 이 주소로 된 부서면 4계는 1915년 12월 6일 전라북도 고시73호로 전주면 각 정(各町)의 구역명이 변경되면서 ‘본정 2정목(다가동 1가)’, ‘본정 3정목(서인동)’, ‘다가정(다가동 2가)’으로 바뀌게 되므로 발행일자와 맞추어 보면 모순되는 것이다. 현재의 지번으로 보면, 이 주소의 번지는 다가서포와 창남서관 사이로 문명서관이 있던 바로 옆 건물이다.<sup>28)</sup>

서계서포에서 인쇄를 담당하였던 사람은 양원중(梁元仲)과 양완득(梁完得)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계서포 서적에서 2개의 주소가 나타나는 판권면에서 인쇄자 ‘양원중’은 ‘全州郡 府西面 四契 十七統 6戶’의 주소를 기재하고 있는 반면, 양완득은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124番’의 주소를 기재하고 있다. 이로써 볼 때 양완득은 양원중보다 후에 인쇄업무를 맡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일제시대의 출판활동에서 서적의 발행과는 별도로 판매를 전담하는 발매소를

28) 이태영, “지역전통문화의 기반 구축과 그 활용 방안.” 「민족문화논총」 제30집, 289-290.

지정하기도 하였으나 서계서포는 출판과 판매가 분화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의 서적발행, 발행일자, 구간기, 가격 등은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1> 서계서포에서 발행된 서적의 발행일자, 가격, 주제

번호	발행서적(발행연도: 가격)	주제
1	「簡禮彙纂」(1911: 40전)	경부예류
	「簡禮彙纂」(1915)	경부예류
2	「擊蒙要訣」(1911: 25전)	자부유가류
3	「구운몽」(1911)	집부소설류
4	「니대봉전」(1911)	집부소설류
5	『唐音精選』(1911: 40전)	집부총집류
6	「文字類輯」(1911: 20전)	자부유서류
7	「사요취선」(1911)	사부초사류
8	「삼국지」(1911: 40전)	집부소설류
9	「喪祭類抄」(1911)	경부예류
10	「소대성전」(1911)	집부소설류
11	「新增證脈方藥合編」(1911)	자부 의가류
12	「십청전」(1911)	집부소설류
13	「兒歲原覽」(1911: 30전)	자부유서류
14	「열녀춘향결가라」	집부소설류
15	「儒胥必知」(1911)	자부유서류
16	「유충열전」(1911)	집부소설류
17	「장풍운전」(1911: 8전)	집부소설류
18	「조웅전」(1911)	집부소설류
19	「조웅전」(1911)	집부소설류
20	「도웅전」(1911: 40전)	집부소설류
21	「全韻玉篇」(1911: 90전)	경부소학류
22	「註解千字文」(1911)	경부소학류
23	「篆草千字文」(1911)	경부소학류
24	「草簡牘」(1911)	집부서간류
25	「초한전」(1911)	집부소설류
26	「초한전」(1911: 40전)	집부소설류
27	「少薇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1911)	사부편년류
28	「화룡도」(1911: 40전)	집부소설류
29	「화룡도」(1908)	집부소설류

(2) 문명서관

문명서관의 대표적인 경영주는 탁종길이다. 그러나 문명서관에서 발행된 서적의 판권면에 ‘저작 겸 발행자’는 탁종길이고, ‘인쇄 겸 발행자’는 양완득이다.

1911년 출판된 1911년 서적의 판권면에 의하면 탁종길의 주소는 ‘전주군진주면다가정70번’이며, 양완득과 문명서관의 주소는 전주군진주면다가정124번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의 ‘다가정’은 대정 2(1914)년 12월6일 전라북도 고시73호에 의해 ‘부서면 4계의 일부와 부서면 3계의 일부’<sup>29)</sup>로 개가 편입된 지역이며, 현재 주소로는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2가 124번지’이다.<sup>30)</sup>

발행자인 탁종길과 인쇄자인 양완득의 주소는 서계서포 발행본인 『唐音精選』의 주소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발행소만 양완득의 주소인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124番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서적의 발행일자에 있어서도 서계서포의 발행본과 마찬가지로 ‘명치 44년 8월 22일 발행’으로 되어 있으며, 서적 발행에서도 동일한 저본을 사용한 예<sup>31)</sup>를 찾을 수 있다. 문명서관에서 발행된 9종의 서적에서 「간례회찬」, 「격몽요결」, 「상제류초」 등 6종의 서적이 서계서포에서 발행한 동일한 서적으로 볼 수 있다.

문명서관에서 발행된 서적의 판권면에서는 서계서포나 다가서포와는 조금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저작겸 발행자, 인쇄겸 발행자, 인쇄겸 발행소에서는 해당자의 성명과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은 서계서포의 예와 같으나 발행을 나타내는 판차사항에서 다른 서포들과는 달리 ‘재판 발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즉, ‘명치 44(1911)년’에 발행되었던 서적을 ‘대정 5(1916)년’에 다시 발행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서계서포와 문명서관의 발행자가 동일한 인물인 탁종길과 양완득이며, 문명서관의 판권지에는 ‘재판 발행’이라는 판차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두 서포간의 연관성을 발행된 서적에서 조사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당시 탁종길은 1914년 이후 서계서포와 문명서관을 동시에 운영하

29) 전주부사, 232.

30) 이태영, 「지역전통 문화의 기반 구축과 그 활용 방안」, 291.

31) 문명서관 발행본(『兒戲原覽』)과 서계서포발행본(『兒戲原覽』)의 구간기는 ‘丙午(1906) 仲秋完山重刊’으로 동일하다.

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명서관에서 출판활동을 전개하였던 시기는 융희 3(1909)년, 명치 44(1911)년, 대정 5(1916)년이며, <표 2>는 문명서관의 발행 활동과 주제, 가격 등을 나타낸 것이다.

<표 2> 문명서관의 발행 활동과 주제, 가격

번호	발행서적(발행일자: 가격)	주 제
1	簡禮彙纂 (1916 재관)	경부예류
2	擊蒙要訣 (1916 재관)	자부유서류
3	도옹진 (1911)	집부소설류
4	喪祭類抄 (1916 재관)	경부예류
5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1911)	사부편년류
6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1916 재관)	사부편년류
7	新增證脈方藥合編 (1911)	자부의가류
8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1916)	사부별사류
9	兒戲原覽 (1911: 40전)	자부유서류
10	兒戲原覽 (1916)	자부유서류
11	小學諸家集註 (1909)	자부유가류

### (3) 완흥사서포

완흥사서포의 경영주는 박경보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인쇄자는 金寬先이나 서계서포나 문명서관과는 달리 인쇄자의 역할만을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1912년 당시 완흥사 서포의 주소는 ‘全州郡 南門外 九石里 1統 1戶’와 ‘全州郡 府南面 九石里 1統 1戶’의 두 가지로 기재되어 있다. 1912년의 ‘府南面 九石里’는 1915년 행정 구역 변경 시에 ‘대화정(전동 1가)’과 ‘청수정(교동)’으로 일부 편입되었기 때문에 발행년도에 비추어 보면 모순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완흥사서포가 주로 활동하였던 시기는 1912년이었고, 활동기간도 비교적 짧은 단 관계로 유통되고 있는 서적 5종<sup>32)</sup>에 불과하며 간행된 서적은 <표 3>과 같다.

<표 3> 완흥사서포의 서적발행 활동

번호	발행서적(가격)	편저자	간행년도	주제
1	少微家塾通鑑節要」	江贊 편	명치45(1912)	사부편년류
2	열여춘향수절가라」(40전)	박경보 편	명치45(1912)	집부소설류
3	인간독」(10전)	박경보 편	명치45(1912)	집부서간류
4	유충열전」(상하: 40전)	박경보 편	명치45(1912)	집부소설류
5	춘향전」	박경보 편	명치45(1912)	집부소설류

(4) 다가서포

다가서포의 경영주는 양진태(梁珍泰, 1869-1933)이며, 양진태가서포로도 불렸다. 이 서포는 1908년에 있었던 양책방이 서계서포를 흡수함으로써 개점<sup>33)</sup>된 것이나 1912년까지 활동하였던 완흥사서포도 흡수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유탁일<sup>34)</sup>의 주장과 구운몽(1914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1914년 다가서포에서 발행된 「九雲夢」의 인쇄자가 완흥사서포의 인쇄자였던 김관선으로 기재되고 있으며, 판권면의 기재 형식에서 매우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당시 양책방의 주인이었던 양승곤(梁承坤)은 양진태에게 입양된 養子였고, 서계서포에서 인쇄자로 등록된 양원중(梁元仲)과는 형제간이었다.<sup>35)</sup> 이러한 인간관계로 미루어 당시 전주지방의 출판사들도 친인척관계에 있던 출판사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가서포에서 인쇄를 담당하였던 사람은 두 명으로 생각된다. 즉, 1914년에 발행된 서적의 판권면에는 인쇄자가 완흥사서포의 인쇄자였던 ‘金寬先’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완흥사서포가 다가서포로 흡수되었다<sup>36)</sup>는 주장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가서포의 판권지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점은 서적을 판매하는 곳을 ‘분매소 경향각서관’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서적의 발행과 유통이 분화되

32)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종합목록시스템에서 확인(2008.11월말 현재).

33) 유탁일, 「한국문헌학연구」(서울: 아세아문화사, 1990), 229.

34) 상계서, 231.

35) 윤규섭, “완판.” 「문장」 제2권 제2호(문장사, 1940), 202.; 유탁일, 「한국문헌학연구」(서울: 아세아문화사, 1990), 228. 재인용.

36) 유탁일, 전계서, 231.

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출판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각 서점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1913년부터 1918년<sup>37)</sup> 까지로 나타나지만 출판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는 1916년이다. 발행된 서적의 종류는 총 49종<표 4>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자장 많은 것은 집부의 소설류이다. 다가서포에서 발행된 소설류에는 판소리계열의 소설과 영웅, 군담소설이 많은 것과, 비소설류에서 「千字文」, 「明心寶鑑抄」, 「蒙學二千字」 등의 아동교육용 도서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4> 다가서포 서적의 발행년도와 주제

번호	발행서적(발행년도:가격)	주 제
1	簡牘精要」(1914)	집부서간류
2	簡牘會粹」(1916:50전)	집부서간류
3	九雲夢」(상권:1916:40전)	집부소설류
4	九雲夢」(하:1916: 40전)	집부소설류
5	니대봉전」(1916)	집부소설류
6	덕성의전」(1916)	집부소설류
7	대봉전」	집부소설류
8	도웅전」(1916)	집부소설류
9	杜律分音」(1916)	집부별집류
10	明心寶鑑抄」(1916: 50전)	자부유가류
11	蒙學二千字」( 1916: 50전)	경부소학류
12	蒙學篇諺解」(1916)	경부소학류
13	文字類輯」(1916)	자부유서류
14	史略」(1916 :50전)	사부별사류
15	四禮便覽」(1912: 2원50전)	경부예류
16	四禮便覽」(1914)	경부예류
17	四禮便覽」(1916)	경부예류
18	삼국지」(1916)	집부소설류
19	喪禮」(1916: 50전)	경부예류
20	喪祭類抄」(1916)	경부예류

37) 방효순, 전계서, 194.

21	소대성전이라」(1916)	집부소설류
22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1914)	사부편년류
23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1916)	사부편년류
24	少微通鑑節要」(1916 ; 50전)	사부편년류
25	新增證脈方藥合編」(1916)	자부의가류
26	심전」(1916)	집부소설류
27	심창전」(1911)	집부소설류
28	심창전」(1916; 50전)	집부소설류
29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1916; 50전)	사부별사류
30	兒戲原覽」( 1914)	자부유서류
31	兒戲原覽」(1916)	자부유서류
32	御定史記英選」(1914)	사부초사류
33	御定史記」(1916)	사부초사류
34	연삼국지라」(1916)	집부소설류
35	열여춘향수절가라」(1916; 50전)	집부소설류
36	유충열전」(1913)	집부소설류
37	유충열전」(1916)	집부소설류
38	장경전」(1916)	집부소설류
39	장풍운전」(1916)	집부소설류
40	朱書百選」(1916)	자부유가류
41	朱書百選」(1918 )	자부유가류
42	註解千字文」(1916)	경부소학류
43	千字文」(1916)	경부소학류
44	초간독」(1914)	집부서간류
45	초간독」(1916)	집부서간류
46	초한전」(1916)	집부소설류
47	춘향전」(1916)	집부소설류
48	홍길동전」(1916)	집부소설류
49	화룡도」(1916)	집부소설류

(5) 칠서방(七書房)

칠서방의 발행본 판권면에는 편집겸 발행자가 장환순(張煥舜)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발행된 서적들은 서포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 사서삼경이다. 이들은 속칭 ‘칠서’라고 통칭되는 것으로 조선시대 교육의 기본도서라고 할 수 있다.

인쇄자는 김광수로 등록되어 있으나 각수이거나 인출장이었을 것으로 추정<sup>38)</sup>

하고 있을 뿐이다. 인쇄점 발행소는 칠서방이고, 총발매소는 창남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칠서방의 출판활동 기간은 1916년부터 1918년의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발매소를 서울과 전주에 지정하여 서적의 판매에 주력하고 있었다. 서포가 있었던 발행자의 주소지인 ‘본정 1정목’은 ‘부남면2계 일부, 부남면 방천리, 부서면 4계의 일부’<sup>38)</sup>이다.

관련면에 등록된 발매소는 발행연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되어 있다. 즉, 1916년에 발행된 서적에는 독자적으로 설립한 발매소인 창남서관 외에 서울의 新舊書林, 滙東書館, 東美書市의 3개 서점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1917년과 1918년에 발행된 서적에는 총발매소로 창남서관만 등록되어 있다. 서적 판매처로 지정된 회동서관은 신서와 구서의 판매와 학부 교과서의 지정 판매처로 1920년대 중후반까지 출판업계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서점이었다. 新舊書林은 일제 초기 매우 활발한 출판활동을 벌여 당시 회동서관과 함께 출판업계의 주도적 자리를 차지하였던<sup>40)</sup> 서점이었다.

칠서방이 서적 판매를 전담하는 창남서관을 만들어 전국의 상대로 사업을 전개하였다는 것은 칠서가 가지는 전국적인 수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칠서방에서 발행된 서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점은 권말에 ‘歲庚午仲春開刊’의 구간기와 바로 그 밑에 ‘全州府河慶龍藏板’이라는 篆字體의 도장이 찍혀 있어 발행된 서적의 저본임을 밝혀주는 것이다. 그러나 저본의 판주인 하경룡이란 인물에 대한 것도 알려진 것이 거의 없으며, 장환순이 어떤 경로로 하경룡의 책판을 인수하게 된 것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음의 <표 5>는 칠서방의 활동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38) 유탉일, 전계서, 232.

39) 전주부사, 232.

40) 방효순, 전계서, 56.

<표 5 > 칠서방의 발행서적과 내용

번호	발행서적(발행년도)	주제
1	家禮」(1917)	경부예류
2	九雲夢」(1916; 崇禎後三度癸亥(1803))	집부소설류
3	論語諺解」(1916)	경부사서류
4	論語集註大全」(1916)	경부사서류
5	大學諺解」(1916)	경부사서류
6	大學章句 大全」(1916)	경부사서류
7	孟子諺解」(1916)	경부사서류
8	孟子集註大全」(1916)	경부사서류
9	事文抄」(1917)	자부유서류
10	史要聚選」(1918)	사부초서류
11	書傳大全」(1916)	경부서류
12	書傳大全」(1916)	경부서류
13	書傳諺解」(1916)	경부서류
14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1917)	사부편년류
15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1918)	"
16	小學諺解」(1916)	자부유가류
17	小學諸家集註」(1916)	자부유가류
18	小學集註」(1916)	자부유가류
19	詩經諺解」(1916)	경부시류
20	詩傳大全」(1916)	경부시류
21	兒歲原覽」(1916; 癸亥新刊)	자부유서류
22	易傳繫辭」(1916)	경부역류
23	精選東萊先生左氏博義句解」(1917)	경부춘추류
24	精選東萊先生左氏博義句解」(1918)	"
25	周易諺解」(1916)	경부역류
26	周易傳義大全」((1916))	경부역류
27	中庸諺解」(1916)	경부사서류
28	中庸章句大全」(1916)	경부사서류
29	通鑑五十編 詳節要解」(1916)	사부편년류
30	通鑑五十編 詳節要解」(1917)	"

(6) 梁冊房

양책방은 19세기 중엽에 이미 설립되었으나 1930년대에 와서 다시 그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20세기 전반기에 양책방에서 발행된 서적

의 간행년도는 연도는 1908년, 1932년, 1937년의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양책방에서 발행된 서적의 판권지에 ‘저작 인쇄 겸 발행자인 양승곤’은 1908년경에 활동하였던 양책방의 경영주와는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양책방은 양승곤의 선대 때인 19세기 중엽에 설립된 것으로 일제 초기에 다가서 포로 개칭했다가 일제 말기에 다시 본래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것<sup>41)</sup>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6>은 양책방의 서적발행활동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양책방 간행본의 판권 면에서는 2명의 인쇄자가 나타난다. 하나는 1932년 발행본의 양창조와 1937년 발행본의 김정근(金貞根)이다. 이들이 각수였는지 혹은 인출 기술자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유탁일이 1977년 11월12일 용진면 아중리로 현지 조사에서 밝

<표 6> 양책방의 발행서적과 내용

번호	발행서적(발행년도)	구간기	주 제
1	「啓蒙編」(1937)	-	경부소학류
2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1932)	-	사부별사류
3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1937)	完西新板	사부별사류
4	「童蒙初學」(1937)	-	경부소학류
5	「蒙學二千字」(1937)	-	경부소학류
6	「四禮便覽」(1937)	-	경부예류
7	「四字小學」(1932)	-	자부유가류
8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1932)	-	사부편년류
9	「兒戲原覽」(1932)	丁未(1907)西溪新刊	자부유서류
10	「언삼국지」(1937)	-	집부소설류
11	「언간독」(1932)	壬寅(1902)季春完西重刊	집부서간(척독)류
12	「日鮮千字文」(1932)	-	경부소학류
13	「日鮮千字文」(1937)	-	경부소학류
14	「千字文」(1937)	乙巳季冬完山新刊	경부소학류
15	「초한전」(1932)	-	집부소설류
16	「화룡도」(1908)	-	집부소설류

41) 유탁일, 전계서, 236

힌 바 있는 우림면 사람<sup>42)</sup>은 바로 양창조임이 관권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책방은 일제 강점기에서 가장 침체기였던 1930년대에 출판 활동을 하였지만 1937년의 중일전쟁이 족보류의 출판 열기로 일반 서적의 출판 의욕이 저하되는 요인<sup>43)</sup>으로 인해 문을 닫음으로써 전주의 방각본 출판도 끝나게 된 것이다.

## 5. 출판물의 내용분석

### (1) 주제별 분포

당시 전주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였던 서계서포, 문명서관, 완흥사서포, 다가서포, 칠서방, 양책방에서 발행되었던 출판물의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제 분석을 하였다.

주제분석을 위해서 각 출판사별 출판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목록시스템과 기존의 전주 방각본에 대한 연구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먼저 전체적인 목록을 작성한 다음, 각 출판물의 판권지를 대조하기 위해서 실물본을 직접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6개의 출판사에서 발행된 서적의 주제별 분포는 <표 7>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계서포가 29종, 문명서관이 11종, 완흥사서포가 5종, 다가서포가 49종, 칠서방이 30종, 양책방이 16종으로 총 140종이다.

각 출판사별로 발행된 서적의 주제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서계서포본의 주제별 분포는 경부가 5종, 사부가 2종, 자부가 5종, 집부가 17종이며, 가장 많은 것은 15종에 달하는 집부의 소설류이다. 문명서관본에서는 경부가 2종, 사부가 3종, 자부가 5종, 집부가 1종이다. 가장 많은 것은 자부의 유서류이다. 완흥사서포본은 사부가 1종, 집부가 4종이며, 소설류가 가장 많다. 다가서포본은 경부 8종, 사부 7종, 자부 7종 집부 27종으로 가장 많은 것은 집부 소설류이다.

---

42) 상계서, 235.

43) 방효순, 전계서, 158.

20세기 전반의 전주 지방 서적 발행 활동에 관한 연구

칠서방본은 경부가 19종, 사부가 5종, 자부가 5종, 집부가 1종이며 가장 많은 것은 경부 사서류이다. 양책방본은 경부가 7종, 사부가 3종, 자부가 2종, 집부가 4종이며, 가장 많은 것은 경부의 소학류이다. 전체적인 주제분포는 41종, 사부가 21종, 자부가 24종, 집부가 54종이며, 가장 많은 것은 집부 소설류이다.

<표 7> 출판사별 주제별 분포

주제	서포	서계서포	문명서관	완흥사서포	다가서포	칠서방	양책방	계
경부	사서류	-	-	-	-	8	-	8
	예류	2	2	-	6	1	1	12
	역류	-	-	-	-	3	-	3
	서류	-	-	-	-	3	-	3
	시류	-	-	-	-	2	-	2
	춘추	-	-	-	-	2	-	2
	소학	3	-	-	2	-	6	11
사부	편년류	1	2	1	3	4	1	12
	별서류	-	1	-	2	-	2	5
	사초류	1	-	-	2	1	-	4
자부	유가	1	1	-	3	3	1	9
	의가	1	1	-	1	-	-	3
	유서	3	3	-	3	2	1	12
집부	총집	1	-	-	-	-	-	1
	서간류	1	-	1	4	-	1	7
	소설류	15	1	3	22	1	3	45
	별집류	-	-	-	1	-	-	1
합계		29	11	5	49	30	16	140

(2) 중복 출판

일제 강점기의 출판 활동에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가 대중들의 요구가 많은 서적들을 중복적으로 출판하는 것이다. 중복 출판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출판사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요가 많은 서적에 대해서는 출판사들이 별도로 발행활동을 벌였기<sup>44)</sup> 때문이며, 이로 인해 동일서에 대한 異本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전주지역의 서포들도 근대 출판의 흐름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을 것이며, 중복적으로 출판되는 서적들은 당시 독자들의 수요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전주지방의 독자들의 독서 취향과 수요를 살펴보기 위해서 각 출판사별로 어떤 주제의 서적들을 중복적으로 출판하였고, 또 출판사 상호 간에는 중복 출판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출판사에서 공통적으로 중복적으로 출판하고 있는 서적으로는 「千字文」, 「兕戲原覽」, 「통감절요」, 「사례편람」, 「춘향전」, 「도옹전」, 「구운몽」, 「유충열전」, 「화룡도」 등이 있었다.

## 6. 출판사별 판권면분석

당시 출판물의 판권면에 기재되는 필수적인 요소는 인쇄일자, 발행일자, 서적 가격, 허가사항, 판권소유, 저작권 발행자 성명과 주소, 인쇄권 발행자의 성명과 주소, 인쇄권 발행소, 발매소의 명칭과 주소 등이다. 출판허가를 받은 사실을 판권면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허가 시기와 출판사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출판사별로 판권면에 기재하였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서계서포

일제 강점 이전의 방각본에서 찾기 힘들었던 저작자와 발행자 및 인쇄자, 발행 연월일이 판권지에 저작권 발행자와 인쇄권 발행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판권지 상의 저작권 발행자를 액면 그대로의 저작자가 아닌 단순한 발행자<sup>44)</sup>로 간주하면 인쇄권 발행자는 인쇄자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 발행자로 간주하여야 하는지도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44) 방효순, 전계서, 78.

45) 유탁일, 전계서, 222.

출판활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였던 서계서포에서 발행된 서적의 판권면을 살펴 보기 위해 「簡禮彙纂(원광대 소장본)」, 「唐音精選(원광대 소장본)」과 「唐音精選」에서 조사하였다. 판권면의 조사에서 발견되는 점은 발행 년월일은 동일하지만 주소와 인쇄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예를 「簡禮彙纂」과 「唐音精選」에서 볼 수 있다.

① 「簡禮彙纂」

발행일자: 明治44년(1911) 八月二十二日發行.

가격: 정가금 40錢

허가사항: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인가,

판권표시: 판권소유

저작권 발행자: 全州郡 府西 4契 13統 6戶 卓 鐘 佶

인쇄권 발행자: 全州郡 府西 4契 16統 6戶 梁 元 仲

인쇄권 발행소: 全州郡 府西 4契 西溪書鋪

② 「兒戲原覽」

발행일자: 明治44년(1911) 八月二十二日發行.

가격: 정가금40錢

허가사항: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認可.

판권표시: 판권소유

저자 권 발행자: 全州郡 府西 四契 十三統 6戶 탁 중 길

인쇄권발행자: 全州郡 府西 四契 十七統 6戶 梁 元 仲

인쇄권발행소: 全州郡 府西 四契 西溪書鋪

③ 「唐音精選」

발행일자: 明治44년 八月二十二日발행.

가격: 정가금 40錢

허가사항: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認可.

판권표시: 판권소유

저작권 발행자: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70番 탁중길

인쇄겸 발행자: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124番 양완득

인쇄겸 발행소: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70番 서계서포

예시된 서적 3종의 판권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권면에는 발행일자, 가격, 허가사항, 판권표시, 저작겸 발행자(주소와 성명), 인쇄겸 발행자(주소와 성명), 인쇄겸 발행소(주소와 명칭)가 기재된다.

두 번째, 판권면에서 사주의 안팎을 선과 도안으로 처리하고 하고 있으나 발행 연도에 따라 다소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허가사항을 { } 속에 표시하고 있다.

네 번째, 판권표시 사항의 사주에 간단한 도안으로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예시된 서적 3종의 판권지에서 분명히 발행일자가 ‘명치 44년 8월22일’로 기재된 것은 동일하나 발행자나 발행소의 주소표기에 있어서 1914년 행정 구역 변경 전후의 것이 혼용되고 있었다. 「簡禮彙纂」과 「兒戲原覽」에서 서계서포의 주소는 ‘全州郡 府西 四契’만 기재되어 있으나 「唐音精選」에서 대정 2(1913)년 12월 6일 전라북도 고시 73호로 변경된 주소인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 70番’로 기재되어 있다. 이 주소의 번지는 다가서포와 창남서관 사이로 문명서관이 있던 바로 옆 건물이다.<sup>46)</sup>

‘府西 4契’의 주소가 기재된 판권면과 ‘佳町70番’의 주소가 기재된 판권면은 사주의 변란 부분과 판권표시의 부분에서 확실히 다르게 도안이 그려져 있는 점이다.

## (2) 문명서관

문명서관에서 발행한 서적의 판권면에 기재된 사항의 예는 喪祭類抄(원광대 소장본)과 「兒戲原覽(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서 볼 수 있다.

---

46) 이태영, 전계서, 289-290.

① 「喪祭類抄」

발행일자: 明治44년(1911) 八月二十二日초판발행. 大正 5(1916)년 11월  
25일 재판발행.

가격: 정가금 ○ ○ ○

허가사항: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인가

판권표시: 판권소유

저작권 발행자: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70番 탁종길

인쇄권 발행자: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124番 양완득

인쇄권 발행소: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124番 문명서관

② 「兒戲原覽」

발행일자: 明治44년(1911) 八月二十二日발행.

가격: 정가금 四拾錢

허가사항: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인가 ,

판권표시: 판권소유

저작권 발행자: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70番 탁종길

인쇄권 발행자: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124番 양완득

인쇄권 발행소: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124番 문명서관

문명서관에서 발행된 서적의 판권면에 기재되는 것은 발행일자, 서적가격, 허가사항, 판권표시, 저작권 발행자(주소성명), 인쇄권 발행자(주소성명), 인쇄권 발행소(주소성명)이다. 그러나 서계서포나 다가서포와는 조금 다른 점은 몇몇 서적의 판차 사항에서 다른 서포들과는 달리 '재판 발행'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즉, '명치 44(1911)년'에 발행되었던 서적을 '대정 5(1916)년'에 다시 발행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3) 완흥사서포

완흥사서포에서 발행된 서적은 가장 적은 종류가 현전되고 있다. 발행된 서적

의 판권면에는 발행일자, 서적가격, 허가사항, 판권표시, 저작권 발행자(주소성명), 인쇄자(성명), 발행소(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현전되고 있는 완홍사 서포본 중에서 「유충열전과 「인간독」의 판권면을 보면 다음의 그림(3-1, 3-2)과 같이 외형에서도 다를 뿐 아니라 주소 등도 약간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① 「유충열전」, 「춘향전」

발행일자: 명치 45년 2월 22일 발행

定價: 金四拾錢

허가사항: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인가, 판권표시:판권소유

저작권 발행자 : 全州郡 南門外 九石里 1統1戶 박경보

인쇄자 : 金寬先

발행소 : 완홍사서포

② 「인간독」

발행일자: 명치 45년 2월 22일 발행

가격: 定價 金十錢

허가사항: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인가

판권표시: 판권소유

저작권 발행자: 全州郡 府南面 九石里 1統1戶 박경보

인쇄자 : 金寬先

발행소 : 완홍사서포

완홍사서포의 판권지는 서계서포의 것보다는 세 가지 점에서 다소 간단하게 기재하고 있다. 발행자의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인쇄의 주체를 기술하는 것에도 단지 ‘인쇄자’라고 기술하고 주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발행소의 표기에서도 ‘인쇄결’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고 주소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

(4) 다가서포

다가서포는 출판된 서적이 가장 많았던 출판사였다. 발행본의 판권면에는 인쇄 및 발행일자, 서적가격, 허가사항, 판권표시, 저작겸 발행자(주소성명), 인쇄소 겸 인쇄자(주소성명), 발행소(주소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판권면을 조사하기 위해 「四禮便覽(전남대, 원광대 소장본)」 「초간독(1916, 1권1책 원광대소장본)」 「구운몽(1914, 국립중앙도서관소장본)」의 판권면에 기재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구운몽(하;1914)」

발행 일자: 대정 3(1914)년 11월 25일 발행

가격: 정가 금 ○ ○ ○

허가사항: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인가,

판권표시: 판권소유

저작겸 발행소 : 전주군다가정123번5통8호 양진태

인쇄자 : 金寬先

발행소 : 다가서포

② 「구운몽(1914)」

발행 일자: 대정 3(1914)년 11월 25일 발행

가격: 정가 금 四拾錢

허가사항: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인가,

판권표시: 판권소유

저작겸 발행소 : 전주군다가정123번5통8호 양진태

인쇄자 : 金寬先

발행소 : 다가서포

③ 「四禮便覽」

인쇄 및 발행 일자: 대정 5년 10월 7일 인쇄, 대정 5년 10월 8일 발행

허가사항: 대정 5년 10월 2일 조선총독부경무총장허가

판권표시: 복제불허

가격: 정가 금50전

저작인쇄권 발행자 :전라북도전주군전주면다가정223번지 양진태

인쇄소 겸 인쇄자: 전라북도전주군전주면다가정223번지 양진태

발행소: 전라북도전주군전주면다가정223번지 다가서포

④ 「초간독(1916) 1권1책」

인쇄 및 발행 일자: 대정 5(1916)년 10월 7일 인쇄, 대정 5(1916)년 10월 8일 발행.

가격: 정가 금 ○ ○ ○

허가사항: 대정 5(1916)년 10월 2일 조선총독부경무총장허가.

저작인쇄권 발행자: 全州郡 全州面 多佳町123番地 양진태

인쇄자 :- -

발행소: 다가서포(주소 없음)

분매소: 경향각서관

예시된 판권면에서 1914년 발행본과 1916년 발행서적이 다소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구운몽(1914)」 ①은 완흥사서포에서 발행된 서적들과 유사하다. 인쇄자가 완흥사서포에서 인쇄자였던 김관선이라는 점과 발행일자, 인쇄자와 발행소에서 성명만 기재되는 등 형식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구운몽(1914)」 ②는 완흥사서포와 기재 형식은 거의 같지만 판권면의 사주와 그 주변 도안은 서계서포의 것과 비슷한 점이 나타난다.

그러나 1916년에 발행된 서적에서 두 종류의 판권면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완전하게 서적가격과 주소를 기재하고, 양태진을 저작겸발행자와 인쇄소겸인쇄자로 기재하고 있는 것<sup>47)</sup>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가격표시에서 서적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 기재를 간략하게 하고, 저작인쇄권발행자로 양태진을 명기하고, 인쇄자는 누락되어 있고, 분매소를 ‘경향각서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47) 「四禮便覽」(1916년: 원광대학교소장본)의 판권면.

다른 서포들의 판권면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허가사항에서 인쇄일자보다 앞선 허가일자가 포함되는 점과 판권표시에 타원형의 도안으로 장식한 점이다.

당시 다가서포에서는 출판물의 판로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의 각 서점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정된다. ‘분매소’의 지정은 서적의 발행과 유통이 분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독자적인 전담 기관을 설립하거나 특정 기관을 지정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진다.

(5) 칠서방

칠서방은 전주지역에서 사서삼경을 주 관종으로 출판활동을 전개하였던 서포이다. 칠서방에서 발행된 서적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歲庚午仲春開刊’의 구간기와 바로 그 밑에 ‘全州府河慶龍藏板’이 표시되어 있는 점이다.

칠서방 발행본의 판권면에는 인쇄 및 발행 일자, 허가사항, 편집겸 발행자(주소성명), 인쇄자(주소성명), 印刷兼發行所(주소명칭), 發賣所(주소명칭)이 기재되고 있다.

판권면을 조사해보면 1916년, 1917년, 1918년의 것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916년 발행본으로 「중용언해(국립중앙도서관소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용언해(1916년)」

인쇄 및 발행 일자: 대정 5(1916)년 4월 11일 인쇄, 대정 5(1916)년 5월 23일 발행.

가격: 항목부재

허가사항: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허가.

편집겸 발행자: 全州郡 本町1丁目141番地 張 煥 舜

인쇄자 :全州郡 大正町5丁目70番地 金 光 秀

印刷兼發行所:全州郡 本町1丁目141番地 七 書 房

發賣所: 全州郡 多佳町1丁目45番地 昌 南 書 館

② 1917년 발행본으로 「事文抄」

인쇄 및 발행 일자: 대정 5(1916)년 8월 1일 인쇄, 대정 5(1916)년 8월 10일 발행.

가격: 항목부재

허가사항: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허가.

편집겸 발행자: 全北 全州郡 本町1丁目141番地 張 煥 舜

인쇄자: 全北 全州郡 大正町5丁目70番地 金 光 秀

印刷兼發行所: 全北全州郡 本町1丁目141番地 七 書 房

總發賣所: 全北 全州郡 多佳町1丁目45番地 振替口座京城4809番 昌 南 書 館

③ 1917년 발행본으로 「소미가속점교부음통감절요」

인쇄 및 발행 일자: 대정 5(1916)년 6월 24일 인쇄, 대정 5(1916)년 8월 27일 발행.

가격: 항목부재

허가사항: 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허가.

편집겸 발행자: 全北 全州郡 本町1丁目141番地 張 煥 舜

인쇄자: 全州郡 大正町5丁目70番地 金 光 秀

印刷兼發行所: 全北全州郡 本町1丁目141番地 七 書 房

總發賣所: 全州郡 多佳町1丁目45番地 昌 南 書 館

이상의 예시된 3개관련면에서 다소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첫째, 서적의 가격 표시와 판권표시가 없는 점이다. 다가서포본에서는 ‘정가금 □□’으로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나 칠서방의 발행본에는 가격표시의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발행자의 저적 역할어가 ‘편집겸 발행자’로 표기하고 있다. 출판물의 대부분이 사서삼경이었던 관계로 편집인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세 번째, 1916년 발행본의 이후에는 서울의 발매소를 이용하던 것을 ‘총발매소’로 창남서관만 지정하고 있었고, 1918년 발행본에는 창남서관 아래에 ‘振替口座

京城4809番'을 기재하고 있었다.

(6) 양책방

양책방에서 발행된 서적의 판권면에는 허가사항, 판권표시, 인쇄일자, 발행일자, 저작 인쇄 겸 발행자(주소성명), 인쇄자(주소성명), 발행소(주소명칭), 분매소가 기재되어 있다. 양책방에서 발행된 출판물에서 현전되고 있는 것은 1932년 발행본과 1937년 발행본의 두 종류가 있으나 판권면에서는 다소간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기 위해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1932년 발행)<sup>48)</sup>과 「천자문(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판권면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허가사항: 昭和 7년 10월 18일 조선총독부허가

판권표시: 불허복제

인쇄일자: 昭和 7년 11월 1일 인쇄

발행일자: 昭和 7년 11월 5일 발행

저작 인쇄 겸 발행자: 전주군 용진면 아중리 890 梁承坤

인쇄자: 전주군 우림면 용복리 梁昌朝

발행소: 전주군 용진면 아중리 양책방

분매소: 경향각서관

② 「천자문」

인쇄발행일자: 昭和 12년 5월 1일 인쇄, 昭和 12년 5월 6일 발행

판권표시: 불허복제

저작 인쇄 겸 발행자: 전주군 용진면 아중리 911번지 梁承坤

인쇄자: 전주군 초포면 신성리 422 번지 金貞根

발행소 겸 발매소: 전주군 용진면 아중리 911 번지

48) 이태영, 전계서, 234.

예시된 두 개의 판권면에서 찾을 수 있는 차이점은 1932년본에는 허가사항이 있으나 1937년 발행본에는 없다. 발매소의 표기에서도 1932년 발행본에서는 ‘분매소: 경향각서관’으로 되어 있으나 1937년 발행본에서는 발행소 겸 발매소로 표현되면서 양책방만 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각 출판사별로 판권면에 나타나는 기재사항의 특징을 일괄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각 출판사별 판권면의 기재사항

서포 기재사항	서계서포	문명서관	완흥사서포	다가서포	칠서방	양책방
발행일자	○	○	○	○	○	○
인쇄일자	-	-	-	○	○	○
가격	○	○	○	○	-	-
허가사항	○	○	○	○	○	○
판권표시	○	○	○	○	-	○
저작역할어	저작겸발행자	저작겸발행자	저작겸발행자	저작겸발행자	편집겸발행자	저작인쇄겸발행자
저작자주소	○	○	○	○	○	○
저작자성명	○	○	○	○	○	○
인쇄	인쇄겸발행자	인쇄겸발행자	인쇄자	인쇄겸인쇄자	인쇄자	인쇄자
인쇄자주소	○	○	○	○	○	○
인쇄자성명	○	○	-	○	○	○
발행소	인쇄겸발행소	인쇄겸발행소	발행소	발행소	인쇄겸발행소	발행소
발행소주소	○	○	-	○	○	○
발행소명칭	○	○	○	○	○	○
발매소	-	-	-	-	발매소	분매소
발매소주소	-	-	-	-	○	-
발매소명칭	-	-	-	-	○	경향각서관

<표 8>에 의하면 발행일자는 각 출판사의 판권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나, 인쇄일자는 다가서포본부터 나타나고 있다. 서적의 가격 표시는 칠서방본과 양책방본에서는 누락되고 있다. 허가일자는 모든 출판사 발행본에 포함되어 있으나 판권표시는 칠서방본에는 보이지 않는다. 저작역할어는 저작겸발행자가 가장 많

이 기재되고 있으나 칠서방본에는 편집겸발행자로 기재되어 있고, 양책방본에는 저작인쇄겸 발행자로 기재되고 있다. 발행자의 주소와 성명은 문든 출판사 발행본에 기재되어 있다. 인쇄 담당자는 인쇄겸발행자, 인쇄자, 인쇄겸인쇄자 등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주소와 성명도 대부분의 서적에 기재되어 있다. 발행소는 인쇄겸 발행소로 표기하거나 발행소로 기재하고 있고, 완홍사서포에서 주소가 누락되고 있으나 거의 다 주소와 명칭은 거의 기재하고 있다. 발매소가 표기된 것은 칠서방본과 양책방본이었다.

(7) 서적가격

출판법의 시행 초기에는 정가 제도를 시도하고자 이 난립하게 되므로 일제초기 하였는지 발행된 서적에 대부분 가격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러나 점차 출판사들 간의 가격 경쟁이 극심하여 판권면의 가격 역시 실제 거래 가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9)</sup>

판권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 출판사 별 서적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즉, 서계서포 서적에서 全韻玉篇 이 90전으로 가장 높은 가격이고, 가장 싼 것은 ‘금8전’의 장풍운전이다. 40전은 「간례회찬」, 「당음정선」, 삼국지 , 道翁전 , 「화룡도」 등이고, 「아희원람」이 30전, 「격몽요결」 25전, 문자류집이 20전이다. 문명서관본에서는 「兒戲原覽」가 40전이다. 다가서포본에서는 「간독회수」, 「명심보감초」, 「몽학이천자」, 「사략」, 「상례」, 「소미통감절요」, 「심청전」, 「십구사략통고」, 「열여춘향슈절가라」가 50전, 「구운몽」(상,하)은 40전, 「사례편람」은 2원50전으로 가장 비싸다.

완홍사서포본에서는 「언간독」이 10전인데 반해 「유충열전」과 「열여춘향슈절가라」은 각각 40전이였다.

49) 방효순, 전계서, 102.

## 7. 결 론

일제의 출판법 시행 이후 1937년 까지 방각본을 출판하였던 서계서포, 다가서포, 문명서관, 완흥사서포, 칠서방, 양책방 등의 서포들이 수행하였던 출판활동을 구명하고자 발행된 서적의 판권면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6개의 출판사들이 활동하였던 기간은 1911년부터 1937년까지이다.

2. 출판 활동에 종사하였던 인물은 발행자는 탁종길, 박경보, 양진태, 장환순, 양승곤이며, 인쇄자는 양승곤, 양완득, 김관선, 김광수, 양창조, 김정근이다. 이들 중에서 양진태와 양원중은 형제간으로 밝혀졌다.

3. 출판활동 지역은 부서 4개, 다가정 70번, 다가정 124번, 다가정 123 5통8호, 문정1정목 141번지, 용진면 아중리 890번지이다.

4. 6개의 출판사에서 발행된 서적의 주제별 분포를 전체적으로 보면, 서계서포가 29종, 문명서관이 11종, 완흥사서포가 5종, 다가서포가 49종, 칠서방이 30종, 양책방이 16종으로 총 140종이다. 개별 출판사별로 발행서적의 주제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서계서포본의 주제별 분포는 경부가 5종, 사부가 2종, 자부가 5종, 집부가 17종이며, 가장 많은 것은 15종에 달하는 집부의 소설류이다. 문명서관본에서는 경부가 2종, 사부가 3종, 자부가 5종, 집부가 1종이다. 가장 많은 것은 자부의 유서류이다. 완흥사서포본은 사부가 1종, 집부가 4종이며, 소설류가 가장 많다. 다가서포본은 경부 8종, 사부 7종, 자부 7종 집부 27종으로 가장 많은 것은 집부 소설류이다. 칠서방본은 경부가 19종, 사부가 5종, 자부가 5종, 집부가 1종이며 가장 많은 것은 경부 사서류이다. 양책방본은 경부가 7종, 사부가 3종, 자부가 2종, 집부가 4종이며, 가장 많은 것은 경부의 소학류이다. 전체적인 주제분포는 41종, 사부가 21종, 자부가 24종, 집부가 54종이며, 가장 많은 것은 집부 소설류이다.

5. 각 출판사에서 공통적으로 중복적으로 출판하고 있는 서적으로는 「千字文」, 「兒戲原覽」, 「통감절요」, 「사례편람」, 「춘향전」, 「묘옹전」, 「구운몽」, 「유충열전」, 「화룡도」 등이 있었다.

6. 판권면에서 발행일자는 각 출판사의 판권면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으나, 인쇄일자는 다가서포본에서 부터 나타나고 있다. 서적의 가격 표시는 칠서방본과 양책방본에서는 누락되고 있다. 허가일자는 모든 출판사 발행본에 포함되어 있으나 판권표시는 칠서방본에는 보이지 않는다. 저작역할어는 저작검발행자가 가장 많이 기재되고 있으나 칠서방본에는 편집검발행자로 기재되어 있고, 양책방본에는 저작인쇄검 발행자로 기재되어 있다. 발행자의 주소와 성명은 모든 출판사 발행본에 기재되어 있다. 인쇄 담당자는 인쇄검발행자, 인쇄자, 인쇄겸인쇄자 등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주소와 성명도 대부분의 서적에 기재되어 있다. 발행소는 인쇄검 발행소로 표기하거나 발행소로 기재하고 있고, 완흥사서포에서 주소가 누락되고 있으나 거의 다 주소와 명칭은 거의 기재하고 있다. 발매소가 표기된 것은 칠서방본과 양책방본이다.

7. 판권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 출판사 별 서적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즉, 서계서포 서적에서 「全韻玉篇」이 90전으로 가장 높은 가격이고, 가장 싼 것은 '금8전'의 「장풍운전」이다. 40전은 「간례회찬」, 「당음정선」, 「삼국지」, 「도옹전」, 「화룡도」 등이고, 「아희원람」이 30전, 「격몽요결」 25전, 문자류집이 20전이다. 문명서관본에서는 「兒戲原覽」가 40전이다. 다가서포본에서는 「간독회수」, 「명심보감초」, 「몽학이천자」, 「사략」, 「상례」, 「소미통감절요」, 「십청전」, 「십구사략통고」, 「열여춘향수절가라」가 50전, 「구운몽」(상,하)은 40전, 「사례편람」은 2원 50전으로 가장 비싸다.

완흥사서포본에서는 「언간독」이 10전인데 반해 「유충열전」과 「열여춘향수절가라」은 각각 40전이였다.

#### <참고문헌>

- 권희승. “호남방각본의 서지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김동욱. “방각본에 대하여,” 동방학지, 11집(1970), 97-139.

- 김봉희. 한국 개화기 서적문화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 마이클김. “일제시대 출판계의 변화와 성장: 고전소설에서 근대문학의 생산시기 까지.” 한국사시민강좌』 제37집(2005. 8) 일조각, 191-204.
- 박대현 편. 우리 책의 장정과 장정가들: 한국 근대도서장정소사 . 열화당, 1999.
- 박상균. “개화기의 서사 출판사,”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제33권 제4호(1978), 23-29.
- 방효순. “일제시대 민간 서적 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백운관, 부길만. 한국출판문화변천사』. 도서출판 타래, 1992.
- 부길만. 조선시대 방각본 출판연구: 한국현대 출판의 뿌리를 찾아서 . 서울출판 미디어, 2003,
- 서지학개론편찬위원회. 「서지학개론」. 한울. 2004.
- 안춘근. 한국서지의 전개과정』. 범우사, 1994.
- 유태일. 한국문헌학연구 . 아세아문화사, 1990.
- 이민희. “조선후기 경판 방각소설 판본의 형태물리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일반 대학원. 2001.
- 이승우. “개화기의 출판 서적계를 가다: 신문광고에 비친 책방 풍속도,” 출판저널』 1993. 10. 5.
- 이종국. 한국출판사연표(I); 1881-1910』. 한국출판연구소, 1991.
- 이종국. 한국출판사연표(II); 1911-1919』. 한국출판연구소, 1993.
- 이중환, 이두영, 양문길, 양평. 우리 출판 100년 . 현암사, 2001.
- 이태영. “지역 전통문화의 기반 구축과 그 활용 방안: 완판본 한글 고전소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 활용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30집 (2004. 1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73-304.
- 이현창. 민적통계표 의 해설과 이용방법.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7.
- 이혜경. 조선조 방각본의 서지학적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1999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임인규. 대한출판문화협회40년사. 대한출판문화협회, 1987.

장명수. 「성곽발달과 도시계획연구: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서울: 학연문화사, 1994.

정용완 편. 적재 울의 발자취. 2000.

정형우. 조선시대 서지사연구. 한국문화원, 1983.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 역사, 2003.

최준. “한국의 출판연구; 1910년으로부터 1923년까지.” 『서울대학교신문연구소 학보 1(서울대학교신문연구소. 1964.)

최준. “한국의 출판연구; 1922년으로부터 1945년까지.” 논문집 1(중앙대학교논문집편찬위원회. 1964.)

최호석. “방각본 출판의 경제성시론.” 『우리문학회』 17. 우리문학회, 2004.

피에르 아술린, 강주현 역. 가스통 갈리마르; 프랑스 출판의 반세기 . 열린책들, 2005.

한국언론사연구회 엮음. 대한매일신보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한원영. 한국신문 한세기. 푸른사상, 2002.

